

## A LITTLE BOOK ON THE CHRISTIAN LIFE

Copyright © 2017 by Aaron Clay Denlinger and Burk Parsons

Originally Published by Reformation Trust publishing (a division of Ligonier Ministries) under the title *A Little Book on the Christian Life*.

Translat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This Korean translation edition © 2021 by Duranno Ministry, Seoul, Republic of Korea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Ligonier Ministries. Ligonier.org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Ligonier Ministries와 독점 계약한 두란노서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그리스도인을 살다

지은이 | 장 칼뱅

옮긴이 | 정성목

초판 발행 | 2021. 4. 21

등록번호 | 제1988-000080호

등록된 곳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65길 38

발행처 | 사단법인 두란노서원

영업부 | 2078-3333 FAX | 080-749-3705

출판부 | 2078-3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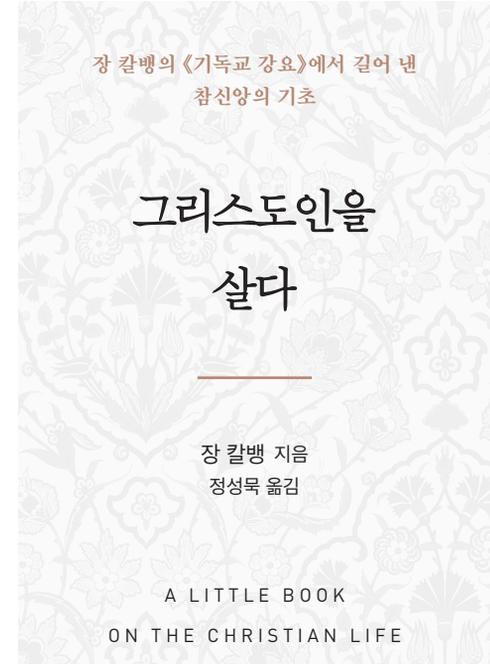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ISBN 978-89-531-3980-0 03230

독자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tpress@duranno.com www.duranno.com

두란노서원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을 따로 세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던 정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20절의 정소에 따라 첫째 목회자를 돕는 사역과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사역, 둘째 세계선교™와 문서선교<sup>탄생본</sup> 잡지 사역, 셋째 예수문화 및 경배와 찬양 사역, 그리고 가정·상담 사역 등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980년 12월 22일에 창립된 두란노서원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들을 계속할 것입니다.





오, 주님,

---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

지체 없이, 진심으로.

---

장길뱅

---



10	CHAPTER 1 당신을 향한 성경의 초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CHAPTER 4 그리스도인을 살다, 영생을 사모하다	90
26	CHAPTER 2 그리스도인을 살다, 나를 부인하다	CHAPTER 5 그리스도인을 살다, 이 땅의 것들을 옳게 사용하고 누리다	110
60	CHAPTER 3 그리스도인을 살다, 내 십자가를 지다	영어판 옮긴이의 글	127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정해 주신 것들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추구하지 않을지를 놓고  
그분과 협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올바른 삶의 영적 기초는  
마음 깊은 곳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함으로써  
거룩함과 의로 나아가는 것이다.

CHAPTER

# 1

---

당신을 향한 성경의 초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삶이 그분의 의로우심을 닮아 가서 ‘그분께 입양된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자신과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점차 닮아 가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그분의 법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게으르기에 지속적인 추구와 권고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 여러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모델을 정립하면, 진정으로 회개한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 가는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방대하고 복잡한 주제라는 것을 잘 안다. 이 주제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쓴 내용을 요약하기만 하려고 해도 실로 방대한 분량의 책이 탄생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이전 세대 신학자들은 개인적 덕목들에 관해 아주 방대한 분량

의 책들을 썼다. 그들이 단어 하나조차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결과물이 탄생했다. 주제가 워낙 중요해서 하나의 덕목을 두고 기술하고 권고하려고 해도 펜이 저절로 끝없이 써 내려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어떤 특정한 덕목이든 제대로 기술하려면 방대한 분량을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책에서 내 의도는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모든 덕에 관해 너무 상세히 논하는 것이 아니다. 장황한 권고를 할 생각도 없다. 그런 권고는 이전 사람들의 저작, 특히 교부들의 설교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내 목표는 단지 경건한 사람들에게 경건한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도록 이끌어 줄 어떤 보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혹시 나중에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주제를 더 자세하게 다룰 시간이 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나는 천성적으로 간결함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길게 쓰려고 해도 분명 실패했을 것이다. 어쨌든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교리를 단순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령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에 관해 길게 쓰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 해도 그런 시도를 하기가 망설여졌다.

철학자들은 덕 있는 삶에 관한 글을 쓸 때 정직과 명예 같은 특정한 덕목들을 규명한 뒤에 거기서부터 특정한 의무들과 다른 덕목들을 도출해 낸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떤 철학적 방법보다도 아름답고 확실한 방법과 계획을 갖고 있다. 많은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관심받고자 명료함을 추구한다. 명료하면 자신의 수사 기술을 뽐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에는 그런 의도가 눈곱만큼도 없다. 그래서 성령은 철학자들의 방식을 따르시지 않았다. 그럼에도 성령은 우리가 명료함을 경멸하지 않도록 진리를 충분히 분명하게 밝혀 주셨다. ▲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과 상반된 의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의를 추구하는 내내 길을 잃지 않도록 해 주는 일종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의의 길을 권장하는 논증이 많이 실려 있다. 내가 쓴 다른 책에서 이런 논증을 많이 소개했고\* 여기서도 적잖이 소개할 생각이다.

일단, 성경에서 의를 권장하는 근거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니 우리도 기록해야 한다는 것보다 더 좋은 근거는 없다. 게다가 우리가 양처럼 흩어져 세상 미로 속에서 헤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그분께로 모아 주셨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거룩함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합시켜 주는 끈이라는 점을 기억하자.

물론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그분의 거룩함을 받아 어디든 그분이 부

르시는 곳으로 가게 된다. 죄와 더러운 것에 일절 연루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영광의 특징이다. 이 거룩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하려면 늘 거룩함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악하고 오염된 세상 속에서 뒹구는 우리를 그 진흙탕에서 불러 주신 것은 바로 거룩함을 위해서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 자라면 그분이 택하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 13장 14절)

거룩한 도성의 시민이 자신의 더러움으로 그 성을 오염시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장막에는 흠 없이 살며 의를 추구하는 자들을 위한 거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거하

시는 거룩한 곳이 지저분한 가축우리처럼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기 위해 성경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모델로 주셨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에게서만 올바른 도덕 철학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철학자들에게서는 더 좋은 모델을 발견할 수 없다. 철학자들이 우리를 선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그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라는 말밖에 해 주지 못한다.

하지만 성경은 참된 원천을 바탕으로 우리를 격려한다. 성경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라고 가르친다. 성경은 우리가 참된 상태 즉 본래 창조된 상태에서 벗어나 타락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하

나눔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으며,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시고 우리 삶에서 그분의 모습과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격려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가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닮아 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그러니 참으로 우리가 의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아니 중독되지 않는다면 배은망덕하게 우리의 창조주를 버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그분과 의절하는 셈이다.

성경은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선물과 우리 구원의 모든 측면에서 행동 원칙을 도출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아들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것이다(말 1:6; 요일 3:1).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에베소서 5장 1절)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고 세례를 통해 이러한 정화를 선포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나쁜 행동으로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전 6:11; 엡 5:26; 히 10:10; 벧전 1:15, 19).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의 몸에 접붙여 주셨다. 따라서 그분의 지체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진흙 같은 더러운 것들을 던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요 15:3-6; 고전 6:15; 엡 5:23-33).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하늘로 오르셨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해 하늘을 갈망해야 한다(골 3:1 및 이하구절).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성별(聖別)하셨다. 따라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해야 하며, 죄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부패하지 않는 하늘과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얻을 운명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를 향해 분투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자신을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순결하게 유지해야 한다(살전 5:23). 이런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

장 거룩한 기초들이다. 이런 것은 철학에서 찾을 수 없다. 철학자들은 기껏해야 육에 속한 사람이 이를 수 있는 덕목들을 권장할 뿐이다. ▲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를 원하지만 명칭과 겉모습 말고는 그리스도의 그 무엇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해서 한마디 해야겠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교만하게 자랑한다. 하지만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된 사람들만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배운 사람이 '유혹의 욕심으로 부패된 옛 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할 수는 없다고 가르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0-24절)

이와 같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관해 아무리 유창하고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리스도에 관한 그들의 지식은 거짓되고 오히려 불쾌해 보일 뿐이다. 참된 교리는 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반 학문 영역과 달리 기독교 교리는 머리와 기억력으로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교리가 우리 영혼 전체를 사로잡고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아야 그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 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그치게 하라. 아니면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릴 만한 삶을 살라고 말하라.